

나주시 내년도 농업 예산 확보 총력

산지유통센터·푸드플랜 구축 등 39개 사업 812억 규모 국고 신청

나주시가 지역 발전과 농가 소득 안정 등 농업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섰다.

나주시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39개 사업·812억원 규모의 국고 예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에 따른 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농업

인·생산단체·농림축산식품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 신청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예산 신청도 최종 완료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전년(722억) 대비 12% 증액된 812억원 규모로 전남도와 농식품부 심의 완료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및 분야는 일반농산어촌 개발·농촌고용인력 지원 등 농정분과 14개 사업 (493억), 농촌

산지유통센터 지원·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등 예산·유통분과 5개(52억) 사업으로 구성됐다.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귀농·귀촌 농촌유치 지원 등 농촌지도분과 8개(17억), 농촌 우수 이용체계 개편, 배수개선 등 건설·농지분과 11개(178억), 조식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분과 1개(72억) 사업이 포함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현안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30억원 들여 526곳에 태양광·태양열 등 설치

강진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착수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군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소재지 주택과 건물 526개소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시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온실가스 절감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특정 지역의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 에너지를 설치하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매달 4~6만 원 정도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군은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컨소시엄 참여업체를 통해 사업대상자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지만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오는 3월 중순 이후 대상자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년에는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읍전면을 대상으로 2024년에는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을 사업 대상지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신청해 강진군 전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준형 강진군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보람과도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들이 에너지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내달 8420명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경영체 등록 주민 대상

함평군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8420명을 대상으로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 중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함평군은 올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월 중 자격 여부 파악 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 함평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첫 해인 2019년 농업인 6808명에 40억8000만원, 2020년 6815명에 40억9000만원, 2021년 7301명에 43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강진 거리 화사해지겠네 반가운 봄비가 지나간 뒤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15일 강진군 성전면 버스터미널 화단에 봄꽃 식재가 한창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재배한 18만 본의 꽃 묘는 금잔화 등 4종류로 가로화단과 공공용지 경관 조성을 위해 심어진다. <강진군 제공>

장흥축협 직원, 5000만원대 횡령

임모씨, '사료 구입 현금 거래' 허술한 관리 체계 악용

장흥축협에서 허술한 사료관리 체계를 악용한 5000여만원대의 횡령사건이 터졌다.

15일 장흥축협에 따르면 관산지점에 근무하는 임모(40)씨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축산농가 오모(53)씨 사료대금 2700만원과 본인 어머니인 박모(65)씨 사료대금 2700만원 등 총 5400만원을 빼돌렸다.

임씨는 축산농가들이 이자면제를 받기 위해 사료 구입시 전수금 거래방식(현금 구입)으로 구매하는 구조적 약점을 이용해 이들 축산농가들이 입금한 사료대금을 자유자재로 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의 횡령사실은 그동안 감춰져 오다 지난 4

일 인사 이동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가 사료대금 관리장부 잔액을 확인할 때 오씨와 박씨가 외상구매자로 확인되면서 밝혀졌다.

장흥축협(조합장·김재은)은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이 사건을 감사의뢰하고 10일 관련자 임씨를 업무배제와 동시에 이사회에 보고했다.

장흥축협 관계자는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임씨가 지난 10일 횡령금액 5400만원 가운데 일부인 950만원을 변제(입금)처리 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협동조합법'상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 횡령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31일까지...최고 2000만원 과태료

장성군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장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사진)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여기에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은 단속 기간 동안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경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인 부정유통 행위 등 사안의 심각성이 클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품권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청년농업인 드론 교육 과정 개강

화순군이 최근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농업용 드론 교육' 과정을 개강했다.

군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업에 농사용 드론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에 발맞춰 체계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드론 교육 과정

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농업인 5명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지정 조정량 비행 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인 춘양면 소재 춘곡국민교육원에 위탁 운영된다.

이론 교육·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의비행·농업용 비행실습 등이 진행된다.

드론 교육 이수자는 다음달 16일 평가 후 국가자격인 조정량 비행 장치 조종자 1종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군은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예남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2년 3월호

2022년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검고 싶은 도시

광주를 꿈꾼다

- 걸으면 도시가 살아난다
- 도시에 퍼지는 푸른 입김, 행복해지는 길
- 걷고 싶은 길, 연대와 이야기 있는 살고 싶은 도시
- 걷는 사람 중심 공간 대전환, 일본의 워커히시티

영도 코티지

美路 味路

생태관광의 최적지 구례의 새봄, 싱그럽다

- 5년만에 복원된 화엄사 4사자3층석탑
- 산수유마을과 쌍산재, 구례수목원과 지리산정원
- '지리산과 하나되기' 산수유촌 '백내리는 당산나무' 김부각
- 우리일로 만드는 수제과자점 '사나레밀'

연중 기획-광주 한 바퀴

GWANGJU TOUR

#3월 광주여행
#K-POP #Fan zone
#비화

매향 초대석

시민과인문학 소통하는 철학자 성진기

"철학이 대중 속에 숨쉬면 좋겠어요"

해외문화기행 4- 독일 뉘른베르크

'중세의 도시' 뉘른베르크에서 뒤러의 예술과 고풍 성벽을 만나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해인사

샷된 없는 깨달음의 청정도량

클릭, 문화현장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빛·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문화를 품은 건축물

자연 담은 '물 위의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문화 화제

'박서보예술상' 제정으로 본 광주비엔날레와 예술상

회자의 전시

광주에 동지 트 외지 문화인들이 말하는 '광주라는 도시'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

"산밥에 총각김치면 죽해"

윤형근, 그림처럼 단순한 점심

문화 화제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더 파더'와 비제 '진주조개잡이' 아리아